서구청장 31억원, 5개 구청장중 1위
전남도의원 10억 이상 재력가 11명

광주시·광주시의회·전남도·전남도의회

광주시의원 3명 1억원 이상 재산 증식
나주시장 69억원 신고 전남 단체장 부동의 1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시의 재산 공개 대상자 34명 중 22명이 지난해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남지역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다.

◇광주=오형국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7700여만원 줄어든 10억2900여만원을, 이형석 경제부시장은 1100여만원 증가한 1억2200여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 5개 구청장 중 김종식 서구청장의 재산이 31억2000여만원(전년도 대비 8700만원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2억4400여만원이 증가한 8억4500여만원을 신고, 5개 구청장 중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최영호 남구청장은 1억900여만원 줄어든 1억2800여만원을 신고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3400여만원 증가한 17억5900여만원을,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9100여만원 증가한 4억8800여만원을 신고했다.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시의원은 서정성, 조영표, 진선기 의원 등 3명이다. 안과의사인 서 의원은 총 5억6300여만원 늘어난 11억1200여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광주 시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진선기 의원은 1억7500여만원을 보태 광주시의원 중 가장 많은 19억5800여만원을, 조영표 의원은 1억8000여만원 증가한 9억1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은방 의원은 9700여만원 늘어난 16억3000여만원을, 조호권 의장은 5900여만원 늘어난 13억5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임동호 의원은 시의원 중 가장 많은 9046만원이 감소했으나, 재산은 17억200만원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강은미 1억4400만원, 김영우 7억5500만원, 나종천 16억5400만원, 문상필 1억3100만원, 정현애 6억4400만원, 정희곤 2억4500만원 의원 등의 재산이 줄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3600만원이 증가한 4억9300만원을 신고했으며, 건물로는 배우자 소유의 2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단독주택과 1억7000만원 상당의 광주 아파트를 신고했다.

◇전남=108억8000여만원으로 광주·전남 최고 재력가인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본인과 배우자가 투자한 주식 등 유가증권이 47억7000만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13억원 이상 줄었다. 건물 45억원, 토지 13억원, 유가증권 34억원, 예금 29억원 등을 신고했다.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권오봉 경제부지사는 10억7700만원을, 구충곤 전남도립대총장은 7억8600만원을 신고했다.

단체장 평균 재산은 15억5600만원이며 지난해 늘어난 재산은 평균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은 수억원대의 예금 규모를 자랑했다. 20억대 이상 자산가들은 어김없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수도권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2개 시장·군수 중 최고 재력가는 임성훈 나주시장으로 69억17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4억7000만원이 줄었지만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사인 간 채권과 채무액이 무려 50억9000만원과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김철주 무안군수가 39억8700만원으로 도내 단체장 2위를, 수협조합장 출신인 김충석 여수시장이 30억83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감 등으로 지난 21일에 공개한 홍이식 화순군수는 지난해 1억66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이 늘어난 3억1400만원을 신고했다.

도의원 중에서는 임명규 도의원이 압도적 1위였다. 토지 35억1500만원 등 72억24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명현관(해남) 의원이 55억90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서옥기(광양2) 의원이 39억8600만원, 나승옥(교육4) 의원이 38억8400만원, 권욱(목포2) 의원이 22억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가운데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1명이며 공개 대상자 가운데 마이너스로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김동철(교육3) -5500만원, 김효남(해남2) 의원 -2억7800만원, 이기병(나주) 의원 -1200만원 등 3명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평균 재산은 8억2600만원, 지난 한해 평균 2400만원이 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순위

◆광주

	이름	재산	전년대비 증감
상위			
1	강운태	38억 3155만원	-1억 6111만원
2	김종식	31억 2026만원	+8723만원
3	진선기	19억 5830만원	+1억 7531만원
하위			
1	김영남	2562만원	-8621만원
2	전주연	5690만원	+6399만원
3	이춘문	7852만원	+1488만원

◆전남

상위			
1	배용태	108억 8417만원	-10억 9499만원
2	임명규	72억 2476만원	+5889만원
3	임성훈	69억 1700만원	-4억 7000만원
하위			
1	김효남	-2억 7800만원	-1억 4266만원
2	김동천	-5500만원	-9601만원
3	이기병	-1200만원	-1620만원

누가 많이 늘었나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속 고위공직자 2380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안전행정부 대변인실에서 직원들이 재산공개 관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9명 늘고 10명 줄어…장병완 82억 최다 보유·최다 증가 '2관왕'

광주·전남 국회의원

주승용 3억여원 줄어
오병윤 6900만원 꼴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9명 중 9명의 재산이 늘어난 반면 10명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2013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강기정·김동철·박주선·박지원·배기운·우윤근·이용섭·이윤석·주승용·황주홍 의원의 재산이 감소했다. 반면, 김선동·김성곤·김승남·김영록·박혜자·이낙연·임내현·장병완·오병윤 의원의 재산은 증가했다.

이 중 주승용 의원의 재산이 가장 큰 폭인 3억6380만원이나 줄었으며 이어 김동철 의원이 3억1630만원, 이용섭 의원이 2억3830만원, 우윤근 의원이 2억1700만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장병완 의원은 지난해 2억6530만원으로 가장 큰 폭의 재산을 늘렸으며 이어 이낙연 의원이 1억7300만원, 김영록 의원이 8870만원, 오병윤 의원이 5180만원의 재산을 각각 늘렸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주 의원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3억5000여만원을 사용, 재산 감소폭이 컸으며 이용섭 의원은 당 대표 경선비용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

또 전남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경우 결혼한 장남의 아파트 전세권을 재산등록하다 보니 재산이 늘었으며 김영록 의원의 재산 증가분 대부분은 정치자금 예금이었다.

전체 재산액수로는 장병완 의원이 82억4840만원을 신고,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고의 재력가로 이름을 올렸으며 주승용 의원이 44억7390만원, 임내현 의원이 31억6950만원, 황주홍 의원이 23억960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하며 뒤를 이었다. 통합진보당의 오병윤 의원은 6900만원, 김선동 의원은 9890만원의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목포 출신 주영순 의원은 73억997만원의 재산을 신고, 재력가로서 주목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굴삭기·저작권·프로축구단 주식 눈길
강우석 전남도의원 한우 21마리 등록

이색 등록 재산

김충석 여수시장 선박 5척
서정성 시의원 염전 신고
언론사 주식 보유자들도

2014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저작재산권, 한우와 순금, 프로축구단 주식, 건설기계 등 이색 재산목록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동화작가인 아내가 출간한 '나는 진짜 나일까' 등 3권의 저작재산권 3000만원을 신고했다.

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광주FC 비상장주식 200주(1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도 부인 명의로 1억원여원의 순금과 다이아몬드, 진주, 사파이어를 신고했다. 부인이 금은방을 운영하다 몇 년 전 폐업하면서 남은 재고 물량 중 일부로 지난 1년 새 순금 9600만원 상당을 처분했다.

축산업협동조합장을 역임한 강우석 전남도의원은 지난해와 같이 본인 명의로 한우 21마리와 송아지 14마리를 등록했다. 소값이 하락하면서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9000만원이다.

언론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전남도의회 권욱 의원은 본인 명의로 목포MBC 비상장주식 2만7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은 한겨레신문 주식 600주(3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김상배 의원은 시가 600만원 상당의 1989년식 기중기 1대와 시가 3000만원 가량의 1999년식 기중기 1대를 보유했다.

30억원대 재력가인 김충석 여수시장은 배우자 명으로 시가 1억3700만원 상당의 자동차 5대, 건설기계 5대, 선박 5대, 어업권 1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은방 광주시의원도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 6대, 로우더 등 건설기계장비와 자동차 등 3억6150만원 상당을 등록했다.

서정성 시의원의 아내는 충남 당진 염전(4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정치인도 여전히 많았다.

윤문칠 도의원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골프회원권 2개를 구입했으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은 아들 BMW 승용차, 본인의 광주컨트리클럽 회원권(1200만원), 아내의 900컨트리클럽 회원권(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밖에 벤처 사업가 출신으로 69억원의 재력을 지닌 임성훈 나주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채권을 재산으로 등록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공직자 중 재력 1위인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총 보유재산이 108억8400만원이었다. 배 전 부지사는 부인 명의로 미국 뉴욕 2번가에 시가 13억원 상당의 고급 오피스텔(66㎡)도 등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